소리 없이 일고 있는 성인 “공자”의 붐

중국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 혁명 후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뒤로 밀어 놓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등소평(鄧小平)은 신흥 공업 지대였던 홍콩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쥐 잡는 게 고양이”라고 하는 백묘흑묘론(白描黑描論)이나 “부자 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라”는 선부론(先富論) 등의 실리를 앞세운 강화로 유명하다. 이들 강화가 일으킨 바람의 순풍만범(順風滿帆)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 급성장의 부작용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여러 다른 나라의 섬유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중국의 상류 계급 사회에서는 연수입이 10억원을 넘어 세계의 갑부가 되었으나, 중국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50% 이상의 빈곤층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빈부의 이극화가 극심하게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료의 부패,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이나 무직 노동자들의 항의 소동이 점차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서 최근 인간에 대한 애정, 정의에 대한 열정, 불행한 자에 대한 연민 등의 덕치(德治)의 정치 사상을 펼쳤던 성인 “공자(孔子)”가 잔잔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 공자의 사상이나 사적을 알 수 있는 근본 자료로서는 논어(論語)가 첫째이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나 예기(禮記) 등이 있는데, 이들 외에는 신용할 만한 공자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66~19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전역을 20세도 안되는 소년ㆍ소

녀들로 구성된 홍위병(紅衛兵)들에 의한 광란으로 중국의 문화를 20년 후퇴시켰다는 문화 혁명은 많은 고서나 사적 등 귀한 자료나 서양과 관련된 인사나 자료 등을 몰아내고, 많은 원로 인사나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거리낌 없이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취푸(曲阜)의 공자묘도 많지 않다고 하는 자료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자를 다시 찾으며, 제례(祭禮)도 몰라 한국에서 배워 갔다고도 한다.

그러한 공자의 생애를 현대 작가가 알기 쉽게 저술한 성인 "공자의 생애"가 중국과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저자 전녕(錢寧)은 중국 인민일보의 기자를 거쳐, 미국 미시건 대학에 유학한 다음 신진 작가가 되었으며, 중국 전부주석 전기침(錢其琛)의 아들이다.

이 책에서는 극히 보통의 인간으로서 공자를 그리고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을수록 공자의 덕은 더욱 돋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